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2년도 기도제목

- 1) 불가능이 없는 믿음 (마가복음 9:23)
- 2) 거룩한 자녀 (데살로니가전서 4:3, 디모데전서 4:5)
- 3)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 (마태복음 21:12~13)
- 4) 재창조의 권능 100% (에스겔 37:4~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식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형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협동 목사/ 문신현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황미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최시은 김진주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기도원 교역자/ 김영석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행엽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환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정오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영호, 김중훈
폴 무사파리 날완고(협력), 자코 네마 시카덴타(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질레르
캐 나 다: 이성일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판: 조찬형, 성 속,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삼휘
몽 골: 발자릭 무레브, 양흐바아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윌슨 존 길, 타리크 지야
중 동: 보나 시무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스트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반성건 이동림 최종태 이주월 추오동 이시헌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오세영 박영준 정안권 박노철 김왕기 박현재 박경춘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김규식 송왕근 김진희 송석길 이강준 장영규 이익석
임영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봉완 홍명일 김준호 이강복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승 이덕형 최희승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정성규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관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호 정용필

명예 장로/ 김영선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영목 배철효 김영남 서상기 문경진 박진무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정용재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흰 들 성가대: 서승현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32장 1절	다 같 이
* 성시교독 47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478장	다 같 이
기 도	이미경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8:12~16	사 회 자
찬 양 주 날 인도하네/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6)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74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안성현 목사

대표기도	오인숙 전도사
성경봉독	욥기 10:13~22/ 사회자
찬양	사랑해요 주님/ 샬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
설교	욥기 강해(24)/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현진 목사

대표기도	김진주 전도사
성경봉독	요한일서 4:16/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은혜/ 장성식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이성철 목사

대표기도	장성식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3:5~10/ 사회자
찬양	샬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51)/ 당회장님

2-9회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9월 19일(월) ~ 10월 2일(주일)
주제/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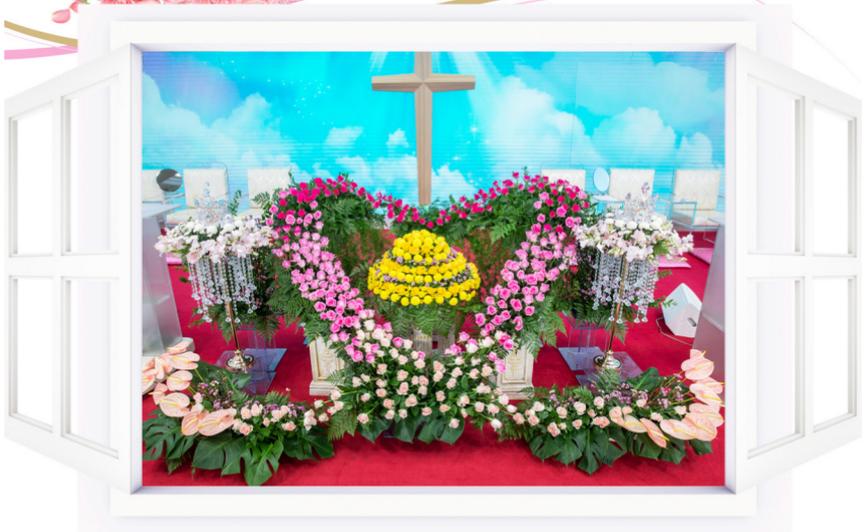
새벽 예배

※ 추후 공지 시까지 새벽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조대희 목사	황금란 목사
주일 저녁예배	노영진 목사	이영인 전도사
수요 예배	박광현 목사	이형진 집사
금요 철야예배	임학영 목사	이미영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5)

본 문 : 롬 8:12~16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를 벗어버리기 위해,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우는 작업을 함께해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진리를 채우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요.

물론 진리를 행하면서 마음에 진리를 채우면 반작용으로 비진리는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비진리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비진리가 더 빨리 벗어져 나가지요.

그렇다면 비진리를 벗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먼저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몸과 결합한 죄성’을 뜻합니다. 미움, 거짓, 간음, 탐욕 등 죄를 짓게 만드는 속성들을 말하지요. 따라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몸과 결합한 죄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다투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몸의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몸’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버린 몸’을 말합니다. 영의 지식 대신에 비진리가 결합한 몸을 가리키지요. 이런 몸에서 나오는,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행실이 다 몸의 행실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써 이 몸의 행실을 죽여 나가면 점점 비진리가 벗어집니다. 이 작업 안에는 여러 가지 작업이 포함되지만, 그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육체의 소욕’을 벗는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가지 큰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1. 육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은 이중 ‘혼’의 작용에 속합니다.

머릿속의 기억 장치, 그 기억 장치 안에 저장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떠올리는 작용을 통틀어 ‘혼’이라고 하지요.

기억 장치, 곧 우리 뇌세포에 저장된 지식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터득하는 상식과 이론, 행동 양식, 가치관 등도 포함되지요. 즉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느낌과 함께 기억 장치에 저장된 것이 다 지식입니다.

물론 별 느낌 없이 입력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느낌과 함께 입력되지요. 느낌과 함께 입력되면 더 또렷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뇌의 기억 장치 속에 입력시킨 지식은 어떤 계기를 만나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즉 생각으로 재생되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 몸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 본 사람은 다친 사람, 또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기억 장치에 저장된 지식 중 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비진리의 지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입력시키는 지식 중에는 진리의 지식과 비진리의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는 아담 안에 진리의 지식만 있었지요. 또 영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혼은 영에 속한 작용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이 죽으면서 대신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했지요.

사단은 공중에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즉 혼의 작용을 통해 역사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육의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 죽은 후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의 혼의 작용을 통해 비진리의 지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리의 반대인 비진리를 심어줍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 자라는 동안 비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입력되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지식이 모두 비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인 것보다 비진리의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지식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취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지요.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은 섬김받는 사람이 더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의 비위를 맞춰 주고 자신에게 저 줄 때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요. 그런데 성경에 비춰 보면 이것이 맞는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더 큰 자이나”는 변론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 하고,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 친히 본을 보여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진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지식 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지식도 많지요. 세상이 더 짙은 어둠과 악으로 물든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는 어떤 비진리의 지식이 입력되었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뜨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 진리만 보고 듣고 진리의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야

육신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났다고 해도 영이 곧바로 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싶어도 원하는 만큼 밝히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이 성장해서 힘이 강해지는 만큼 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진리에 속한 영의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를 다 벗고 영의 사람이 되면 그때는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되지요.

원수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어찌하든 비진리를 심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비진리가 없는 사람은 영에 완전히 지배받기 때문에 비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차원이 될 때까지는 진리만 보고 듣고 진리의 생각, 곧 영의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남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면 ‘뭉다. 어떻게 혼내 줄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지?’ 하고 어찌하든 이해하고 용서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했을지 자신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 쓴 짧은 수기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집에 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물으니 한 아이가 할퀴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유치원에서 코피가 터진 적

이 있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맞지 말고 같이 싸우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생은 동생이라서, 여자는 여자라서, 친구는 친하게 지내야 하니 못 싸워요.” “내가 속상한 표정으로 방을 나서자 훌쩍이며 따라 나온 아들이 하는 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잘 피할게요.’” 여러분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맞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는, 또는 자신이 그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시기, 질투, 권세와 명예에 대한 탐욕 등 비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막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도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란 계신다고 속여서 많은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게 하고 진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지요.

마음에 비진리가 많은 사람은 원수 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지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일뿐더러 또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반대이고 곧 사망이요 번뇌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고 진리를 채워 나가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원수 마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비진리를 다 벗고 진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 영의 귀에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 축복의 길을, 또 천국의 길을 잘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선을 좇으라

본 문 : 데살로니가전서 5:15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항상 선을 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같은 상황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로 인해 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을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지요.

역사를 보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아도 선에 속한 사람의 행동과 악에 속한 사람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1. 악을 악으로 갚는 경우

우리나라 역대 왕 중 연산군은 생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후 큰 악을 행합니다. 자신의 생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신하는 누구인지, 누가 이에 동조했는지 살살이 찾아 귀양을 보내거나 죽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부관참시를 했으며, 선왕의 명에 따라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전한 신하까지 대역죄인의 이름으로 사약을 내렸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한 맺힌 죽음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요 원통한 일입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자신이 가진 큰 권세로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이지요.

성경상의 요압도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어서 양갓음을 함으로 그 결말이 좋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군대의 장관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에게 큰 유익을 주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다윗의 뜻을 어기고 대업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다윗왕이 아직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하지 못하였던 때, 다윗을 따르지 않던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할 의사를 밝히려 찾아옵니다. 다윗은 화친하러 온 무리들에게 잔치까지 베풀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의 뒤를 따라가 그를 죽였습니다. 이는 앞선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양값음이었지요. 동생이 죽은 일은 큰 슬픔이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다윗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원한은 풀고 복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마음에 악이 있었기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 다윗의 뜻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대신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데도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왕에게 충성했던 요압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5) 말씀한 대로 요압의 마음이 악하고 변화되지 않으니 상황만 되면 그 악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유익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나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미움이라는 악이 있으면 내가 싫은 사람은 상대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저만치서 오면 피해버리거나 모른 척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중심에서 악을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악을 버리게 되고, 마음에 선만 남으면 아무리 원수 값을 일이라도 선으로 대하게 되니 오히려 승리하는 것입니다.

2. 악을 선으로 갚는 경우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당파 싸움에만 정신을 팔고 있던 조정 대신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군장으로 파병된 이들은 하나같이 패전의 소식만 안겨다 주었지요.

그러나 당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서 왜적이 아예 조선 땅에 발을 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고, 놀라운 활약으로 백성과 왕에게 큰 힘이 되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지요.

이순신은 낮은 직책만 갖고 있다가 좌수영에 부임하자 군비 확충에 힘썼고 거북선 연구 제작에 골몰하여 마침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옥포에서부터 시작하여 한산대첩 등 연속 승리를 거두자, 그 공로가 인정되어 최초로 “삼도수군통제사”라는 직분까지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는 훈련을 강화하고 군비 확충과 난민 구제, 산업 장려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이었습니다. 원균을 비롯한 악한 무리의 시기와 모함으로 이순신 장군은 압송되어 사형을 받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러나 또 다른 의로운 이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균이 참패를 당하자 이순신 장군은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이때는 거북선도 없애지고 함선은 열두 척뿐이었으며, 병력 또한 빈약하

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올린 첫 번째 글에 “함선이 열두 척이나 남아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열악한 병력을 이끌고 명량에서 133척의 적선을 맞아 용감히 싸웠고, 그 이듬해에는 노량에서 500여 척의 적선을 맞아 명나라와 연합하여 싸우다가 적군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왕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 다. 만일 서운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인배 같은 마음이나 악한 감정이 있었다면 죽음을 불사하며 백의종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니 충성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본분을 지키는 선의 마음이 있었기에 모함을 받더라도 생명 다해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이요 의입니다.

성경상에도 힘든 일을 당해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예들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품삿을 속이고 주지 않는 삼촌 라반에 대해 변치 않는 성실함으로 봉사한 야곱, 자기를 시기하여 원수처럼 죽이려 쫓아오는 사울왕에게 오직 선을 행하며 선악 간에 하나님만 의뢰했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던 총리 요셉도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악한 무리를 향해서도 항상 선으로 대하셨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깨우침을 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최고의 선이지요.

3.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좇으려면

1) 마음의 악을 버리고 입술을 지켜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좇으려면, 먼저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했으니 우리 마음을 악이 없는 선한 마음으로 개간해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등 악한 마음이 모두 뽑혀진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악을 빼내기 위해서는 악을 행치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생각에 맞추어서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며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수군거림과 비방으로 사단의 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29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발을 선으로 개간하고 영으로 일군 사람들은 그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하므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함께 판단 정죄하여 죄 짓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 선을 좇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특히 입술을 지키며 그 마음에 조그만 악이라도 버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2) 낙심치 말고 지속적인 선행을 하여야

선을 좇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지런히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지속적인 선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중도에 하차해 버리는 이유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다 지치는 경우, 열심 내다 식어지는 경우, 믿음의 경주에서 뜨겁다가 식어지는 경우, 기도를 쉬는 경우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힘을 잃어 지속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참이 아니지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충성하는 것,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변함없이 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선을 행해 나갑니다. 우리 주님은 더 아픔의 길을 걸으셨고 더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진정 안다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깁니다. 더군다나 선행이라면 큰 즐거움으로 행하지요.

또한 마음에 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요. 그러니 서운한 감정이 생길 리 없고, 누구를 미워할 일도 없으며 '어찌하면 더 많이 드릴까?' '어찌하면 더 큰 기쁨이 될까?' 선한 근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로 높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마음먹고, 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면 서로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악이 떠나가고 선이 임하며 분쟁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임하니 주위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과 신부 단장을 잘하자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5:1~13

외울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23

참고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4

교육 내용 /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에 대해 깨닫게 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시며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 처녀는 하나님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못 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를 잘한 성도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1. 열 처녀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지요.

밤은 깊어 가고 신랑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 처녀 모두 졸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 처녀는 부랴부랴 옷매무시를 가다듬고 등을 챙겨 불을 밝혔지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등불이 꺼져갑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 부탁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와 아무리 외쳐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무서운 말만 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내일도 있다”며 깨어 있지 않고 신부 단장에 힘쓰지 않습니다. 신부 단장의 기회는 깨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며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은 기름이 떨어져도 느끼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온전히 신부 단장을 마치라고 당부하십니다. “...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하셨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과 짝하며 쾌락을 즐긴다면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구원과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주님의 신부 된 자격을 갖추려면

성경을 보면 주님을 신랑, 성도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서 시작된 6천 년 인간 경작이 마쳐지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 단장에 힘쓰는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 어린양(곧 주님)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아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니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 신부 단장에 힘쓰며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부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떠한 시험 환란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행함을 증거로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약속의 씨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였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금 신상을 만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하였지요(단 3:15).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지켜 주셨기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며 크게 영광 돌렸지요.

둘째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교양과 지식으로 길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삼상 16:7).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청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온전히 버려야 마음이 청결해지고 자기 몸과 주변도 청결히 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을 ‘두루마기를 뺀다’고 표현합니다. 요한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나...” 말씀하지요. 만일 옷에 오물이 묻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이 빨아서 입을 것입니다.

마음에 묻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물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내야 하지요. 다투고 헐기 내던 사람은 헐기를 버려야 하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며,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누구와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품게 됩니다.

셋째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듯이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영혼의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점차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구원에도 이를 수 없지요. 만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어 있어 신랑이 터디 오는 것을 알았다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살전 5:4).

그러나 깨어 있지 않으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으로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름 준비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믿음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 단장을 잘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주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신부 자격은 무엇일까요?

- ① 어떠한 시험 환란에도 흔들림이 없는 ()을 가져야 한다.
- ②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이 없어야 한다.
- ③ 기름 준비하고 () 있어야 한다.

2.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려면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때 기름은 ()와 () 총만함을 뜻한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어린양의 혼인 잔치'(계 19:9)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7년 동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를 가리킨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영혼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한다.
 이때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베푸신다.
 장차 백보좌 대심판을 통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국의 처소와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데,
 그 전에 혼인 잔치를 베풀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안성현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이영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인도 텔루구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포르투갈어(120호), 말레이시아어(10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9월 은사집회가 9월 30일 금요일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접수는 9월 19일(월)부터 9월 25일(주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와 응답을 위한 성령 충만 다니엘 철야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인도로
9월 19일(월)부터 10월 2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준비찬양은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예배 후 오후 5시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제21회 말씀퀴즈대회」 시상식이 오늘 저녁예배 시 있습니다.
- 당회장님 저서들(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넷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 소식

11교구 연합예배/ 9월 21일(수) 오전 11시 정재희 지역장 맥(인도: 조은영 교구장)

• 감사드립니다.

강단현화/ 김태식6 집사(4가나안)(꽃꽃이 봉사: 예배국 미화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신학교 예배실	사택 예배실
9월 18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6 교구	7~10 교구
9월 25일	대예배	1~6 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10월 2일	대예배	7~10 교구	1~6 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0월 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6 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이영인 전도사 010-4820-1700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9/18 일

- 00:00 - '일곱교회 3'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15' 이수진 목사
- 14:00 - '우리 삶의 등불 113' 이재록 목사
- 18:30 - '수직인생' 문신현 목사

9/19 월

- 01:00 - '순교'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49'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76'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5'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3' 이재록 목사
- 19:30 - '우리 삶의 등불 52' 이재록 목사

9/20 화

- 01:00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9' 이수진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77' 이재록 목사
- 10:20 - '일곱 영 2'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13' 이재록 목사
- 13:00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6' 이수진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4'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16'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11

9/21 수

- 00:00 - '일곱교회 6' 이재록 목사
- 01:00 -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5' 이재록 목사 (영상설교)
- 05:00 - '모든 것에 화목하라' 이수진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14'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1'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5'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52'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56' 이재록 목사

9/22 목

- 01:00 - '선을 좇으라' 이수진 목사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53, 54' 이재록 목사
- 08:00 - '창세기 강해 79'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1'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15' 이재록 목사
- 13:00 - '십계명 2' 이재록 목사
- 15:30 - '믿음을 척량하시니 6'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5' 이수진 목사

9/23 금

- 08:00 - '창세기 강해 80' 이재록 목사
- 10:20 - '사랑 2' 이재록 목사
- 14:00 - '일곱교회 7' 이재록 목사
- 17:00 - '요한계시록 강해 55'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28
- 20:40 -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

9/24 토

- 07:05 - '요한계시록 강해 56' 이재록 목사
- 10:00 - '그리스도의 향기' 이재록 목사
- 12:05 - '십자가의 도 17'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114'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olleh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KT olleh tv 882번, 유튜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아예배_ 오후 11시
다니엘 철야 기도회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manmin.org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m.manmin.org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gcntv.org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m.gcntv.org

- Sep. 18(Sun.)

(John 6:63)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the flesh profits nothing;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are life.”

- Sep. 19(Mon.)

(Daniel 12:10) “Many will be purged, purified and refined, but the wicked will act wickedly; and none of the wicked will understand, but those who have insight will understand.”

- Sep. 20(Tue.)

(Matthew 10:20)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it is the Spirit of your Father who speaks in you.”

- Sep. 21(Wed.)

(Exodus 20:12)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 your days may be prolonged i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 Sep. 22(Thu.)

(Amos 3:7) “Surely the Lord GOD does nothing Unless He reveals His secret counsel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 Sep. 23(Fri.)

(Habakkuk 2:14)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 Sep. 24(Sat.)

(Jeremiah 33: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금주의 성경구절

9월 18일(주일)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9월 19일(월)

(단 12: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9월 20일(화)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9월 21일(수)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9월 22일(목)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9월 23일(금)

(합 2:14)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9월 24일(토)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옥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아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람이 나의 빛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재설교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2.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 3. 예배편
사랑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 4. 기도편
치료하는 영약이요/ ... 5.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 6. 심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 7.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 8. 열재양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장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다스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간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 3
하나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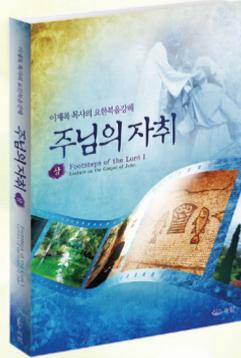
9월 추천도서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강해

주님의 자취

상

Footsteps of the Lord
Lecture on the Gospel of John



2022. 9. 1.(목) - 9. 30.(금)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아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오
하나님의 법도/ 심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선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빛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